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

Behavioral Patterns Perception in the Kitchen and Utility Space among Apartment Resident's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김진영
교수 강순주

Dept. of Consumer Science & Housing, Konkuk Univ.

Lecture : Kim, Jin-Young

Professor : Kang, Soon-J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I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identify the living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residents in relation to the behavioral patterns in the kitchen and utility space and secondly to present the basic material necessary for planning the kitchen and utility space of future desirable apartments with consideration for resident usage.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Behavioral patterns in the kitchen and utility space were classified as personal life, family with harmony, talking with visitors, caring for children, cleaning, cooking, and keeping and collecting. 2) Behavioral patterns in the kitchen and utility space showed patterns on personal life, family with harmony, and talking with visitors and were used in the kitchen including the dining room. 3) As the required kitchen size and sink arrangement varied according to the kinds of furniture appliance, plan for the kitchen work is very necessary.

주제어(Key Words): 가사작업공간(Kitchen and utility space), 사용행태와 의식(Behavioral patterns and perception)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상승, 가족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변화, 식생활 문화의 발달, 공간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확산과 정보화의 물결들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양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주거의 역할 중 하나는 능률적인 가사작업공간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변화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의 인식 또한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존 아파트들의 가사작업공간은 가사의 주 담당자인 주부의 생활행위와 의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현재의 가사작업공간은 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획일적인 양상을 보이며 전체 주택 규모 확장에 따라서 단순히 면적만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사작업공간의 면적확대는 거주자의 생활행태나 의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불만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사작업공간 면적과 작업대 유형에 있어서 불만족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최연진, 2000).

최근에는 주거공간과 주생활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주택의 질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가사작업공간이 제 2의 거실로서 준 사회 공간화의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에 대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주자 위주의 가사작업공간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1970년대 이후부터 시대별로 아파트 가사작업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부엌(식사공간 포함)과 다용도실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

부의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와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른 주부들의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행태변화와 의식을 읽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가사작업공간 계획의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2. 용어정의

1) 가사작업공간

가사작업행위는 주거 공간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식사공간/부엌, 다용도실로 한정한다.

2)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의 보유현황과 가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로 규정한다. 가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는 가사작업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개인생활·가족단란·접대·자녀 돌보기·취사·장류(醬類)보관·옷 손질·세탁·수납 행위로 한정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3년 8월 13일~8월 23일까지 주거규모가 전용면적 18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무작위로 750개 표집 하여 실시하였다. 전용면적 18평형 이상으로 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중 전용면적 18평형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회수 결과 총 660부(88%)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580부(77%)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SPSS Win Program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1970년대 이후 아파트 가사작업공간의 시대적 변화

1) 1970년대

1970년대는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정착과 함께 대규모의 주택단지개발을 하던 시기였다.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단지(1,584세대), 강남의 반포 아파트(3,786세대), 잠실 주공 5단지 고층아파트(3,930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의 도입과 적용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시기의 가사작업공간의 특징은 부엌이 실내로 진출하여 다용도실, 화장실과 연계되어 배치되었으며(전원희, 2001), 부엌이 입식화 되고 개방되어 DK형식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주거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LDK형도 정착되었다. 스테인레스 스틸제 싱크가 처음 등장하고 조리대, 가스대, 찬장 등 모든 설비를 갖추어 부엌의 완전 개방된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김지연, 1993). 또한 3LDK, 4LDK 평면의 보편화, 부엌과 거실의 연결,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 등으로 들 수 있다(김수진, 1999; 이해경, 1990).

2) 1980년대

1980년대는 대규모 단지 중심인 양적 위주의 건설시기로서, 1981년을 기점으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 건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주택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당시 주생활의 주요한 변화를 꼽으라면 당연히 부엌기능의 확대와 거실의 완전한 독립을 들 수 있다. 종전에 주택의 모서리 공간을 차지하던 부엌공간이 식당공간과 결합하며 가족의 단란한 생활을 위한 중심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통로공간으로서의 거실이 부엌과 함께 주된 생활의 공간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부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거실-식당-부엌이 연결되어 오픈 된 LDK의 형태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한길수, 2002).

이 시기의 가사작업공간 특징으로는 다용도실은

대부분 세탁실의 개념으로 부엌 근처의 실내에 위치하였으나, 1980년 초반부터 신도시 아파트에서 큰 평형을 제외하고 다용도실의 외부화 현상으로서 발코니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김수암, 김상호, 1993). 또한 부엌 공간 내 빌트인(built-in)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3) 1990년대

1990년대는 새로운 방향을 위한 모색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주택 2백만 호 건설계획과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게 되어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사작업공간의 특징을 보면 30평형 이상 규모의 평면은 LDK 구성이 완전히 정착되어 거실과 부엌, 식당의 공간 구성이 분명해졌다. 계단 실형 진입방식의 선호로 전후면 모두 베란다 계획이 가능하였고, 그에 따른 서비스 공간의 계획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가사작업공간은 가정생활과 자동화 시설의 중심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입식형이 개선 발전된 유형인 현대형 가사작업공간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현대형 가사작업공간은 가사 노동절감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간구성을 위한 첨단 가전기기와 부엌용품이 통합·설계된 부엌자동화 시스템으로 소위 「시스템 키친」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부엌공간의 평면배치에 대한 자유도가 증가하여 부엌이 점점 외기에 면하거나 주택전면에 위치하여 부엌공간의 소외지양, 개방형 가사공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었다(이경희, 2002).

4) 2000년대

2000년대는 인간적인 주거공간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대로 건강, 안전, 기능, 쾌적성을 추구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대이다.

이 시기의 평면 특징은 계단식이지만 현관 출입구가 훨씬 넓어지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작은 평형에서 3bay(전면에 방+거실+방 배치)설계가 보급된 형태인데, 이는 일조

권·채광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2bay 아파트가 깊이가 긴 반면 3bay는 깊이가 짧은 대신 전면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앞뒤 발코니가 커져 가용면적이 넓어졌고 수납공간이 많아졌으며,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가사작업공간의 특징은 종전의 형식은 주부가 가사 일을 할 때 벽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됨으로써 가족과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여,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가족과 대면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일랜드(섬)형 부엌을 도입한 곳이 많았으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변형된 아일랜드형으로 부엌을 개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한 아파트 전면에 부엌을 배치하는 이른바 신 LDK¹⁾ 평면이 주택시장의 신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가사작업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1) 사회적 배경

가사작업공간 중 특히 부엌은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유입된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간의 위치, 설비 및 가구, 공간 사용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과거의 가사작업공간은 한 집안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인 동시에 조리과 난방 및 주부들의 가사작업 등을 수행하는 다목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의 구성단위가 소규모화 되고, 주부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은 조리를 하고, 먹고, 즐기는 장소로써 뿐만 아니라, 세탁 및 집안의 잡다한 일의 처리와 더불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모여 즐기는 장소로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가 변화함으로써 인해 식사준비와 이 일에 소비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적 충족에서 질적, 감각적 충족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거공간으로 주목하게 되었다(최연진, 2000).

2) 식생활 문화의 변화

오늘날 식생활 문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가장 중심의 식사에서 가족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전통적으로 아침 식사를 중요시하던 것에서 저녁 식사에 더욱 중점을 두는 식사형태로 변화하였다(최연진, 2000). 또한 식생활의 대표적 변화추세인 식생활의 다양화 즉 간편식 선호, 가공식품의 구입증가, 식사패턴의 변화는 가사작업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 요인이 되었다.

서양 식생활 문화가 보급됨에 따라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계절채소 말리기 등의 활동 폭이 큰 작업이나 주부가 혼자 장시간 식사준비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따라 가족전원이 간단한 음식을 편리하게 조리하는 가사작업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이경희, 2002).

3) 여성의 역할 및 삶의 변화

여성 지위의 변화와 역할변화는 주거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가사작업공간이 그 하나이다. 20세기 초 독일에서는 기능주의적 건축개념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부엌모델(Die frankfurter k che)이 개발되었으며, 많은 진보적 건축가들에게 부엌은 주택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주택의 평면과 가사관리에 새로운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수행된 많은 공동체 실험을 통해 주부의 고립을 종식시켜 가사작업도 사회적 노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분업화와 전문화, 더 나은 가정기기의 디자인과 설치에의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김대년의 4인, 1995).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사를 통해 소비하는 에너지 및 시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가사노동의 단순화를 한층 더 요구하게

1) 아파트 앞 베란다 쪽에 방, 거실, 부엌을 배치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주택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평면형태이다.

〈표 1〉 가사작업공간의 시대적 특징

년도	의식 및 생활변화	배치 형태	난방 및 설비	다용도실의 형태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의 식침 분리 현상 (DK, LK, LDK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아파트에서 전면에 부엌 및 식당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난방 방식의 도입으로 난방과 취사가 완전히 분리 → 부엌의 입식화 → 부엌은 조리와 취사를 전담, 취사연료는 LPG 가스·보일러의 보급 → 부엌바닥의 고저차를 없앴 · 스테인레스 스틸제 싱크가 처음 등장하고 조리대, 가스대, 찬장 등 모든 설비 갖춰짐 → 부엌의 완전 개방된 설계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실과 서비스 발코니를 다 갖춘 형태가 등장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생활도구 선호 증대 → 기능적 공간의식 · 식사준비·정리 및 가족식사가 부엌공간에서 이루어짐 · 주생활 의식 변화 → 가족단위의 장소로 바뀐 손님 접대용 공간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부엌공간은 거실과 동등한 공간으로 격상 → 부엌의 의미 변화 (취사공간에서 다기능 생활공간) · 부엌 입식화의 보편화 및 현대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절감 효과 · 식사와 침실의 분리현상이 보편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L+D+K로 부엌과 식당이 분리되어 외기에 개방된 밝은 공간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가구의 시스템화 및 공업화, 취사기구의 자동화 · 자재의 고급화 · 빌트인 써스텀 부엌 가구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평면에서는 다용도실이 없어지고 세탁공간이 발코니로 이동 → 실내공간의 확장 부엌이 직접 외기에 면해 부엌이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옴 · 다용도실의 면적이 줄고 위치도 부엌내로 들어옴 → 기능과 면적이 축소된 형태로 변화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평형 이상 LDK구성이 완전히 정착되어 거실과 부엌, 식당의 공간구성이 분명해짐 · 입식형이 개선 발전된 현대형 가사작업공간의 비중이 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이 전면에 위치하거나 점점 외기에 면함 · 부엌 평면 배치에 대한 자유도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부엌의 보편화 → 첨단 가전 기기와 부엌용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통합 ·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보급과 설비의 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실은 후면 발코니화가 이루어짐 · 계단실형은 후면 발코니가 다용도실에 설치 · 편복도형은 다용도실이 없어짐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공간에 여유공간이 설계됨 → 피아노실, 인터넷 공간, 운동공간으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을 거실 옆 남향으로 배치 → 신LDK형 보급 (전면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첨단설비와 정보화 시스템들 갖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실을 넓게 설계 → 부엌뒤쪽에 보조 부엌 설치

된다. 이는 주거의 공간구성과 설비면에 있어서 가사작업의 기능성과 효율성, 합리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아파트는 이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가사노동을 가능하

게 해주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증가는 가정의 의미가 폐쇄적인 개인영역으로부터 공공적 기능을 가진 사회적 단위로 변화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더 나아가 주거의 사회적 기능과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이경희, 2002).

4) 부엌설비의 변화

부엌은 가사노동이 집중되는 장소이므로 우선은 부엌의 설비를 잘 배치함으로써 가사노동 조건의 합리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오늘날의 부엌의 일은 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부엌이 낡아나고 언제나 정리가 안 된 너저분한 곳이라는 인식도 바뀌고 있다. 따라서 부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한 각종 가전제품 및 부엌 가구 등이 개발되고 있다.

가사용 내구 소비재로서 냉장고, 세탁기, 전기 청소기, 오븐 레인지 등 기존의 가전제품은 물론 새로운 가사절감형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 주거공간의 보급과 함께 빨래건조기 및 식기세척기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와 수납장, 중앙 집중식 청소시스템 등 보다 편리한 가사작업을 위한 설비기기들이 확산되면서, 가사노동의 경감과 노동의 질을 변화시켰으며 이들을 위한 고정 공간의 확보는 부엌 및 가사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정혜원, 2000).

이러한 부엌기기의 설비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쾌적하고 다양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고 가족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었다. 또한 가사노동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므로 무엇보다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크게 절약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

공간사용행태는 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의 집합이다(김진균, 심우갑, 박수빈, 2002: 53-62). 또한 공간사용행태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

생활 행위의 양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의 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즉, 각 공간에서 어떤 행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김미희, 1992).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접객행위는 주택유형에 구분 없이 주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행위로 나타났으며, 거실에서는 가족단란과 접객행위, 부엌에서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식사와 취사행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조성희, 1987).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당/부엌은 주로 식사공간으로 이용되고 부분적으로 가족단란과 손님접대 공간으로 이용되므로, 식당/부엌은 가족실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손님 접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사회 공간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 하였다(김미희, 윤복자 1992: 25-39).

평면유형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서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DK형에 대하여 손님접대와 가족 단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은 높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접객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행사에 있어서 부엌에서 치르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이 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미희·문희정, 2001: 51-58).

아파트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현재 부엌에서는 세탁, 손님접대, 이웃과의 친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 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래에 부엌에서 하고 싶은 행위는 가계부 정리와 담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사용행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및 기기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세탁관련행위(다림질, 빨래 건조, 빨래 개기)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이를 보조하는 기기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박희진, 김묘정, 2003: 101-108).

이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의 평면의 물리적 변화와 사용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1980년대는 거실-식당-부엌이 연결되어 오픈 된 LDK형태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실

제 사용행태에서는 거실에서는 가족단란과 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식사와 취사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변화가 있었는데 거실공간에서 행해졌던 가족단란이나 손님접대 행위 등이 가사작업공간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신 LDK평면이 생기면서 이제 부엌에서는 가계부 정리와 같은 개인생활행위 뿐 아니라 담소와 같은 가족단란 행위들을 가사작업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가족단란, 손님 접대, 개인휴식 등이 안방에서 거실 이제는 가사작업공간으로까지 그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작업공간에서의 손님접대와 가족단란을 위한 공간 사용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사용행태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김미희의 1인(1992)의 연구와는 반대로 울산 거주자의 부엌에 대한 부가적 사용실태 연구에서(박희진 외 1인 2003) 개인생활행위 중 가계부 정리(42.5%), 가족단란 행위 중 간식 및 다과(45.6%), 가족모임(18.2%), 손님접대는 21.3%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를 보면 점점 가사작업공간에서 개인생활행위, 가족단란 행위, 손님접대 행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및 수도권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부엌뿐 아니라 다용도실을 포함한 가사작업공간에서의 사용행태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주부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57.1%로 많았으며, 대졸 이상은 42.9%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68.3%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주부는 31.7%이었다. 월소득은 251~400만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f(%)
주부연령	39세 이하	264(45.5)
	40~49세 이하	248(42.8)
	50세 이상	68(11.7)
주부학력	고졸 이하	331(57.1)
	대졸 이상	249(42.9)
주부직업	전업주부	396(68.3)
	취업주부	184(31.7)
월 소득	250만원 이하	168(29.0)
	251~400만원	262(45.2)
	401만원 이상	150(25.9)
주거규모	20평 이하	226(39.0)
	30평 이하	278(47.9)
	40평형 이상	76(13.1)
소유형태	자 가	428(73.8)
	전 세	152(26.2)
거주기간	2년 이하	185(31.9)
	2년~4년	192(33.1)
	4년 이상	203(35.0)
가 족 구성원	부부	43(7.4)
	부부 + 자녀 1인 가족	115(19.8)
	부부 + 자녀 2인 가족	339(58.4)
	부부+자녀 3인 이상 가족	53(9.1)
	부부 + 기타가족	83(14.3)

원이 45.2%로 가장 많았다.

주거규모는 30평형 이하가 47.9%로 많았다.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73.8%로 자가 비율이 높았고, 전세는 26.2%이었다. 거주기간은 4년 이상이 35.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가족구성원은 부부+자녀 2인 가족이 58.4%로 가장 많았다.

2.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직업공간의 사용행태

1)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의 보유현황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의 보유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김미희, 1991; 윤복자, 1997; 양지안, 1999; 이경희, 2002)를 참고로 하여 『제품이 있는 경우』와 『제품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표 3).

그 결과 『제품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여 자주

〈표 3〉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의 보유현황

N=580(%)

행 위	실(室)	제품이 있는 경우			제품이 없는 경우	
		필요하여 자주 사용함	필요하나 자주 사용 하지는 않음	불필요함으로 사용하지 않음	필요함으로 언젠가는 구입예정	불필요함
1. 김치 냉장고		338(58.3)	49(8.4)	11(1.9)	129(22.2)	3(0.5)
2. 양여닫이문 냉장고(지펠, 디오스 등)		206(35.5)	23(4.0)	5(0.9)	219(21.0)	122(21.0)
3. 냉 동 고		205(35.3)	33(5.7)	8(1.4)	73(12.6)	251(43.3)
4. 가스 오븐 렌지		236(40.7)	91(15.7)	22(3.8)	114(19.7)	110(19.0)
5. 가스렌지		472(81.4)	22(3.8)	5(0.9)	6(1.0)	65(11.2)
6. 전자레인지		390(67.2)	115(19.8)	12(2.1)	29(5.0)	31(5.3)
7. 식기 건조기		146(25.2)	66(11.4)	42(7.2)	144(24.8)	172(29.7)
8. 식기 세척기		102(17.6)	47(8.1)	28(4.8)	206(35.5)	187(32.2)
9. 정 수 기		323(55.7)	17(2.9)	12(2.1)	130(22.2)	90(15.2)
10. 공기 청정기		154(26.6)	47(8.1)	18(3.1)	219(37.8)	124(21.4)
11. 컴퓨터(부엌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61(10.5)	23(4.0)	13(2.2)	75(12.9)	281(48.4)
12. 라디오(")		136(23.4)	97(16.7)	36(6.2)	64(11.0)	157(27.1)
13. TV(")		117(20.2)	28(4.8)	16(2.8)	68(11.7)	249(42.9)
14. 오디오(")		85(14.7)	51(8.8)	23(4.0)	90(15.5)	223(38.4)
15. 전기밥통(압력밥솥)		512(88.3)	32(5.5)	8(1.4)	6(1.0)	19(3.3)
16. 믹서기/쥬서기		305(52.6)	218(37.6)	26(4.5)	14(2.4)	16(2.8)
17. 토스트기		172(29.7)	203(35.0)	53(9.1)	49(8.4)	99(17.1)
18. 드럼 세탁기		105(18.1)	20(3.4)	11(1.9)	259(44.7)	173(29.8)
19. 일반 세탁기		473(81.6)	17(2.9)	6(1.0)	8(1.4)	67(1.6)
20. 커피 메이커		140(24.1)	186(32.1)	82(14.1)	42(7.2)	126(21.7)
21. 후드(환기장치)		389(67.1)	95(16.4)	22(3.8)	37(6.4)	37(6.4)
22. 가사용 작업대(다림질, 의류손질 등)		209(36.0)	111(19.1)	20(3.4)	136(23.4)	98(16.9)
23. 수납 선반		367(63.3)	70(12.1)	9(1.6)	88(15.2)	45(7.8)
24. 업무용 작업대(컴퓨터 사용, 독서 등)		164(28.3)	104(17.9)	19(3.3)	108(18.6)	180(31.0)
25. 젖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203(35.0)	57(9.8)	18(3.1)	174(30.0)	125(21.6)
26. 부엌 쓰레기통(분리수거용)		380(65.5)	52(9.0)	7(1.2)	97(16.7)	39(6.7)
27. 세탁조(빨래용 개수대)		265(45.7)	55(9.5)	12(2.1)	133(22.9)	105(18.1)
28. 식기용 장식장		249(42.9)	110(19.0)	25(4.3)	91(15.7)	98(15.7)
29. 보조 가열대(인덕션)		65(11.2)	71(12.2)	30(5.2)	215(37.1)	190(32.8)
30. 센서식 수도		73(12.6)	29(5.0)	10(1.7)	216(37.2)	246(42.4)
31. 인터넷 냉장고		7(1.2)	14(2.4)	18(3.1)	129(22.2)	397(68.4)
32. 체온감지 조명장치		50(8.6)	21(3.6)	18(3.1)	157(27.1)	329(57.6)
33. 전 화 기		440(75.9)	28(4.8)	11(1.9)	51(8.8)	47(8.1)
34. 와인 저장고		18(3.1)	19(3.3)	29(5.0)	90(15.5)	416(71.7)
35. 웨곤(이동식 선반)		34(5.9)	37(6.4)	33(5.7)	137(23.6)	332(57.2)

사용함"에 속하는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을 보면 전기밥통(88.3%), 일반세탁기(81.6%), 전자레

인지(67.2%), 김치 냉장고(58.3%) 등이 50%이상으 로 높은 편이었다.

김치냉장고, 양 여닫이문 냉장고가 필요하여 자주 사용함에 35% 이상의 빈도를 보인 것도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논란이 되어 온 한국의 식생활 문화인 김치 저장 방식과 관련된 공간 이용에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부엌 및 다용도실의 공간 구조와 규모는 김치냉장고를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타나, 앞으로 주거계획에서 고려할 점으로 분석된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최근 드럼세탁기, 양 여닫이문 냉장고 등의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가전시장이 고객들을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여 언젠가는 구입 예정”에 속하는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을 보면 드럼 세탁기 44.7%, 공기 청정기 37.8%, 식기 세척기 35.5%, 김치 냉장고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럼세탁기와 식기세척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사노동을 절감하고 합리화하는 기기로서 주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등과 같이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을 원하는 것은 가사작업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라 생각되며, 이러한 빌트인 가전제품을 통해 가사작업 공간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이 있는 경우』식기세척기의 실제 사용빈도는 17.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식기세척기가 예전에 비해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제작되어 나오는 있지만 전기료나 식기세척기 전용세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세척 시간이 이외로 많이 걸리는 것이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그리고 가사작업공간에 불필요함을 느끼는 가전 기구로는 컴퓨터(48.4%), 센서식 수도(42.4%), 체온 감지 조명장치(57.6%), 인터넷 냉장고(68.4%), 와인 저장고(71.7%)의 비율로 나타나, 정보화와 더불어 홈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부(본 조사대상자 주부의 평균 연령이 40.7세)들이 아직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조가열대(37.1%)와 세탁조(빨래용 개수

대: 22.9%)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용도실의 계획 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부엌의 가전기기 점유공간의 면적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공간 증대 욕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 가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

본 연구에서는 가사작업공간만의 행위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타공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부엌(식사공간/부엌) 다용도실, 후면발코니에서의 가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였다. 가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는 개인생활·가족단란·접대·자녀돌봄·세탁·취사관련·보관 및 수납행위로 구분하였다(표 4).

부엌을 식사공간과 부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식사공간」에서의 개인생활 행위는 “가족 1인의 식사”·“독서 공부”가 각각 60.4%·47.8%로, 가족단란 행위는 “가족이 함께 차 마시기”·“가족회의 및 모임”이 각각 59.2%·55.1%, 접대 행위는 “친한 친구 및 이웃의 식사”가 63.2%, 자녀 돌보기 등의 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는 이전에 거실에서 행해지는 주생활행위가 LDK가 보편화됨에 따라 식사공간도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사용의 폭이 확대되어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엌」에서는 일반 취사행위 이외에도 “김치 담그기”가 61.8%로 나타나 김치를 담글 때 동작 범위가 넓고 다양한 자세가 요구되므로 가사작업공간의 면적에 대한 고려와 함께 물을 쓸 수 있는 가사작업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관 행위에서는 “김치 보관”·“장류(醬類) 보관”이 각각 59.0%·43.3%로 행해지고 있었다. 「다용도실」에서는 세탁행위 중 세탁기 세탁은 56.4%, 손세탁은 54.3%가 행해지고 있었고, “다림질과 빨래 개기” 등의 옷 손질과 “일반 생활용품 보관”과 같은 수납 관련행위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후면발코니」에서는 “세탁물 건조”가 60.1%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면 발코니와 후면 발코니에서 세탁물 건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표 4〉 기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

행위		실(室)	부역		다용도실	후면 발코니 (뒷베란다)	전체빈도 (%)
			식사공간	부역			
개인 생활 행위	1. 독서, 공부		99(47.8)	55(9.5)	35(6.0)	18(3.1)	207(100.0)
	2. 혼자 휴식		72(36.9)	64(32.8)	22(11.3)	37(19.0)	195(100.0)
	3. 취미생활		61(34.3)	50(28.1)	46(25.8)	21(11.8)	178(100.0)
	4. 인터넷 이용		4(44.4)	5(55.6)	.	.	9(100.0)
	5. 가계부 정리		177(46.7)	157(41.4)	39(10.3)	6(1.6)	379(100.0)
	6. 가족 1인의 식사		331(60.4)	210(38.3)	6(1.1)	1(1.1)	548(100.0)
가족 단란 행위	7. 가족담소·오락·휴식		61(34.3)	48(33.3)	26(18.1)	9(6.3)	144(100.0)
	8. 가족이 함께 차·과일 등의 후식 먹기		135(59.2)	73(33.3)	14(6.1)	3(1.3)	228(100.0)
	9. 자녀와의 대화		87(55.1)	60(38.0)	4(2.5)	7(4.4)	158(100.0)
	10. 가족회의 및 모임		90(58.1)	44(28.4)	19(12.3)	2(1.3)	155(100.0)
	11. TV시청		15(42.9)	12(34.3)	7(20.0)	1(2.9)	35(100.0)
접대 행위	12. 친한 친구 및 이웃의 접대		171(58.4)	104(35.5)	16(5.5)	2(0.7)	293(100.0)
	13. 친한 친구 및 이웃의 식사		277(63.2)	143(32.6)	17(3.9)	1(0.3)	438(100.0)
자녀 돌봄	14. 자녀의 공부돌보기		29(39.2)	22(9.7)	20(27.0)	3(27.0)	74(100.0)
	15. 자녀의 학습		23(34.8)	19(28.8)	21(31.8)	3(4.5)	66(100.0)
	16. 자녀의 놀이		12(42.9)	16(57.1)	.	.	28(100.0)
세탁 행위	17. 세탁기 세탁		2(4)	32(6.3)	289(56.4)	189(36.9)	512(100.0)
	18. 손세탁(손빨래)		3(8)	10(2.5)	216(54.3)	169(42.5)	398(100.0)
	19. 세탁물(빨래)건조		3(7)	27(6.5)	136(32.7)	250(60.1)	416(100.0)
	20. 빨래 개기		34(20.6)	41(24.8)	68(41.2)	22(13.3)	165(100.0)
	21. 옷손질, 다림질		25(12.8)	44(22.4)	102(52.0)	25(12.8)	196(100.0)
	22. 허드렛일(운동화세탁, 걸레빨기 등)		2(5)	21(5.5)	191(49.9)	169(44.1)	383(100.0)
취사 관련 행위	23. 김치 담그기(안하면 안하다고 기입해 주세요)		35(8.2)	264(61.8)	61(14.3)	67(15.7)	427(100.0)
	24. 생선, 야채 다듬기		42(7.3)	467(80.9)	45(7.8)	23(4.0)	577(100.0)
	25. 곰국, 간장 달이기		38(6.8)	430(76.5)	57(10.1)	37(6.6)	562(100.0)
보관 및 수납 행위	26. 김치보관		45(8.0)	333(59.0)	104(18.4)	82(14.1)	564(100.0)
	27. 고추장, 간장, 된장 보관		24(4.3)	242(43.3)	158(28.3)	135(24.2)	559(100.0)
	28. 쌀보관		24(4.7)	176(32.1)	204(37.2)	143(26.0)	549(100.0)
	29. 세계, 휴지 보관		6(1.2)	35(6.0)	267(46.0)	190(32.8)	498(100.0)
	30. 부엌관련 큰 그릇 및 냄비류 보관(점통, 다리야 등)		12(2.2)	171(30.8)	220(39.6)	153(27.5)	556(100.0)
	31. 스키, 골프채 보관(없는 경우는 없다고 기입해 주세요)		.	5(3.2)	57(36.1)	96(60.8)	158(100.0)
	32. 운동 및 기타(헬스 기구)(없으면 없다고 기입해 주세요)		1(0.8)	3(2.4)	42(33.3)	80(63.5)	126(100.0)

* 기타 및 무응답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빈도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세탁 행위 중 세탁기 세탁·손세탁도 36.9%·42.5%로 다용도실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기사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서·공부(47.8%), 가계부 정리(46.7%)와 「개인생활행위」나 가족이 함께 차 마시기(59.2%), 자녀와의 대화(55.1%)와 같은

「가족단란 행위」, 친한 친구 및 이웃의 식사(63.2%)와 같은 「손님접대 행위」는 식사공간을 포함한 부역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윤정근(1999)의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생활 행위 중 주부의 독서는 14.3%로, 손님접대는 27.6%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식사공간/부엌에서 개인생활·가족단란·손님

접대 행위들이 행해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전에 부엌은 주로 식사공간으로 이용되고, 가족단란이나 손님 접대 등은 거실에서 행해졌지만 이제는 부엌과 오픈 되어 있는 식사공간으로 옮겨지면서 부엌이 더 이상 주부만의 공간이 아닌 가족공동의 공간과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그 기능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가사작업공간이 단순히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 전용의 공간이 아니며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모두의 공간으로 계획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최연진(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세탁행위」는 다용도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코니, 부엌에서의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파트 평면 계획 시 효율적인 세탁 행위를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되며, 부엌과 다용도실의 연결 관계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가사작업공간 내에서 세탁 및 가사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키친 유틸리티 형식이 선호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관 및 수납 행위」는 부엌에서는 김치 및 장류 등의 보관이 다용도실에서는 쌀, 세제, 휴지, 부엌관련 큰 그릇 보관 등이, 후면 발코니에서는 스키, 골프채 및 운동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수납 및 저장음식과 야채들의 보관 장소로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납공간에 대한 면적 증대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3.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 인식

1)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인식 유형

아파트 거주자들의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요구도를 묻는 여러 의식들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항 29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치가(eigenvalue) 1.0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후 22문항만을 직각회전 방식(orthogonal rotation) 중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사작업공간 인식 유형은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유형 I은 「가족공동 다기능 지향」, 유형 II는 「다용도실 기능 지향」, 유형 III은 「설비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문항별 평균을 나타낸 결과는<표 5>와 같다.

「다용도실 기능지향」을 문항별로 보면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가 4.12/5점, “보조부엌 기능 외에 수납공간의 기능이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가 4.00/5점, “부엌 옆에 다량의 채소를 씻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3.8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세미(2001)의 연구에서처럼 다용도실의 공간협소와 물 사용 공간과의 분리가 안 되어 있어 식품저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가족공동 다기능 지향」을 문항별로 보면 “부엌이나 식당은 가족전체가 도울 수 있는 공간이다”가 3.95/5점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엌을 종합적인 가사작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와 “부엌은 가족의 단란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 한다”가 3.62/5점이었고, “부엌은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가 3.5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작업공간을 주부만의 공간이 아닌 가족 단란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설비지향」을 문항별로 보면 “가정기기를 불박이로 설치하고 싶다”가 3.77/5점, “능률적인 부엌을 위해서 홈오토메이션(HA)은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 한다”가 3.55/5점, “세탁기를 부엌 작업대 밑에 설치하여 가사노동 동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한다”가 3.47/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빌트인(built-in)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인식 유형

앞서 살펴본 가사작업공간의 3개의 인식 유형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추후 검증으로 DMR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표 6).

〈표 5〉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인식 유형별 문항

유형	문항	평균
다용도실 기능 지향	1. 부엌 옆에 다른 가사작업공간을 위한 넉넉한 다용도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3
	2. 냄새나 연기가 많이 나는 음식 조리 시 외부공간(보조부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99
	3. 다용도실은 입식보다는 앉아서 가사일을 할 수 있는 물 쓰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55
	4. 다용도실은 보조부엌으로서의 기능 외에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4.00
	5. 부엌 옆에 다량의 채소를 씻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84
	6. 저장음식, 갑자, 마늘, 양파 등 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2
가족 공동 다기능 지향	7. 부엌은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2
	8. 부엌은 가족의 단란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3.62
	9. 부엌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2.93
	10. 부엌에서 세탁과 관련된 일(세탁, 빨래건조, 빨래 개기, 다림질 등)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3.04
	11. 부엌은 자녀 돌보기(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등)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2.49
	12. 부엌은 가계부 정리와 같은 주거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3.25
설비 지향	13. 부엌을 식사준비나 설거지 외에 종합적인 가사작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넓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62
	14. 부엌이나 식당은 가족전체가 주부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5
	15. 부엌이나 식당에서 손님 접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3.61
	16. 부엌은 일의 능률화를 위해서 다른 업무 및 인터넷을 할 수 있게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02
	17. 능률적인 부엌을 위해서는 홈오토메이션(HA)은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3.55
	18.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해서는 최신형 가전기기가 빠짐없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7
설비 지향	19. 세탁기를 부엌 작업대 밑에 설치하여 가사노동 동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7
	20. 식탁대신 카운터를 설치하여 부엌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32
	21. 재택 근무가 가능토록 부엌공간에 컴퓨터통신설비,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1
	22. 가정기기(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동고, 드럼세탁기)등을 불박이로 설치하고 싶다	3.77

가사작업공간 인식 유형 중에서 「가족 공동 다기능 지향」은 주부연령·학력, 월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주부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월소득이 251~4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사작업공간을 가족 공동의 다기능 공간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사작업공간을 가족단란의 장소이면서 손님을 접대할 수 있고, 주부의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사작업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용도실 기능 지향」도 주부연령·학력, 월소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주부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월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경우 다용도실의 면적증대와 취사행위 시 보조부엌으로서의 필요와 수납기능이 강

화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비 지향」도 주부연령, 학력, 월소득, 주거규모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주부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월소득이 251만원 이상인 경우, 주거규모가 40평형 이상인 경우 설비 지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젊고, 주거규모가 넓을수록 부엌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공간의 여유로 인해 가사작업공간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첨단 설비와 빌트인(built-in) 가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현대적 설비가 갖춰지고 보다 능률적인 가사작업공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아파트 거주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젊은층과 더불어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인식 유형의 차이

변인	집 단	가족 공동 다기능 지향			다용도실기능 지향			설비지향		
		평균	D	F/t	평균	D	F/t	평균	D	F/t
주부연령	39세 이하	3.47	b		3.99	b		3.46	b	
	40~49세 이하	3.25	a	11.89***	3.78	a	5.96**	3.20	a	8.69***
	50세 이상	3.13	a		3.99	b		3.17	a	
주부학력	고졸 이하	3.23			3.82			3.19		
	대졸 이상	3.47		4.43***	4.01		2.96**	3.48		4.63***
주부직업	전업 주부	3.32			3.93			3.32		
	취업 주부	3.38		-.96	3.85		1.20	3.30		.35
월 소득	250만원이하	3.22	a		3.79	a		3.18	a	
	251~400만원	3.42	b	4.94**	3.94	ab	2.80*	3.35	b	3.67*
	401만원이상	3.31	ab		3.96	b		3.40	b	
주거규모	20평형 이하	3.36			3.88			3.21	a	
	30평형 이하	3.33		.51	3.93		.26	3.36	ab	4.11*
	40평형 이상	3.27			3.90			3.47	b	
가족 구성원	부부 + 1인자녀 가족	3.35			3.88			3.30		
	부부 + 2인 자녀이상 가족	3.33		.14	3.90		.42	3.34		.65
	부부 + 기타가족	3.31			3.97			3.23		

p<.05*, p<.01**, p<.001***

을수록 가족공동 다기능과 함께 보다 능률적인 다용도실 공간에 대한 요구도 및 현대적 설비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월소득이 적을수록 설비지향보다는 다용도실의 보관 장소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으며, 주거규모가 클수록 최첨단 설비와 빌트인(built-in) 가전을 갖춘 설비지향 의식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의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의 보유상황에 따라서 부엌의 배치와 면적의 요구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김치냉장고가 널리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는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부엌이나 다용도실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적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양 여닫이 문 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에 대한 필요도의 증대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동선계획의 필요성과 수납공간에 대한 면적 증대, 아울러 작업대 배치나 다용도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가사작업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기존 거실에서 행해졌던 개인생활·가족단란·손님접대·자녀 돌보기·세탁행위들이 가사작업공간에서도 동시에 행해지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예전에 거실에서 행해졌던 행위들이 가사작업공간으로 옮겨지면서, 가사작업공간을 더 이상 주부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미 가족공동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주택의 중심이 안방에서 거실로 옮겨진 것 같이 오늘날은 거실과 함께 가사작업공간도 이에 못지않게 주택의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손잡침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실보다는 가족이 지닌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공간으로서의 가사작업공간의 기능이 새롭게 평가될 것이다.

셋째, 세탁관련 행위는 부엌, 다용도실, 발코니와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파트 평면 계획 시 이러한 세탁공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보관 및 수납 행위 또한 부엌, 다용도실, 후면 발코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용도실 및 후면 발코니에 대한 수납 및 저장음식과 야채들의 보관 장소로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납공간에 대한 면적 증대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가사작업공간의식을 유형화한 결과 「다용도실 기능지향」에 대해 요구도가 높았는데, 특히 수납 및 저장음식과 야채들의 보관 장소로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조부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작업공간 내 다용도실이 부엌 옆에 자그마한 보조공간의 기능으로부터 저장, 보관 및 세탁, 그 외 가사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 유형의 차이에서 월소득이 적을수록 설비지향 보다는 다용도실 지향의식이 높았으며, 주거규모가 클수록 최첨단 설비와 빌트인(built-in) 가전을 갖춘 설비지향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실적인 가사작업공간계획에서 벗어나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가사작업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와 의식을 설문으로만 조사하여 가사작업공간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심층적인 분석이 병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를 통해 물리적 형태에 따른 사용행태 차이와 주부들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의식에 따른 사용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미희, 문희정(2001). 식당겸 부엌 전면배치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7(8), 51-58.
- 김미희, 윤복자(1992).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I). 대한건축학회지, 8(10), 25-39.
- 김진균, 심우갑, 박수빈(2002).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11), 53-62.
- 박희진, 김묘정(2003). 아파트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3), 101-108.
- 윤종근(1999). 주생활 변화에 대응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2002). 공동주택 거주자의 부엌공간에 관한 의식 및 행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원(2000).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 유형과 공간 대응관계 고찰을 통한 새로운 평면형식의 제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1987).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연진(2000). 거주자의 식생활 유형에 따른 공간계획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영(2002). 가사행태를 통해 본 아파트 가사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년 10월 29일 접수, 2005년 1월 21일 채택)